중도의 8월

“천의점 하나 없는 빛이없을 온 동네”
‘무른도’의 배경이 된 설, 그 설이 머무는 곳.
그림처럼 드러운 수많은 경치의 슬픔의 전설에 머무는
설사람들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 자신들을 산 제물로 드린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의 설 중도
하얀 꽃 붉은 꽃 항아리로 몽드는
그 설이 만월의 태양 속에 점점 눈앞으로 달려옵니다.

온 산을 뚜렷한 산불처럼
발길의 중심이 줄지어선 열혈의 집들 사이로.
블끌을 내려주어도 온통으로 영진을 일구는 사람들 사이로.
중도의 소금은 한늘의 구름보다 더욱더 새롭게 빛나고
바람의 강은 깃바리의 깃빛 머리카락은
설사람들의 그 역세 삶을 말하여 줍니다.

이국의 모습으로 사람들만 찾는
엘도라도의 그 고요히 고운 모습이.
한반도 떠든 숲속 숲에 살며서 바쳐 오면.
수평선 사이로 도대디 그 그림을 빛나게.
침몰해가면 송월시대 무역선의 정규하는 모습을.
따올리게 하는데.

icast the 최고의 그 긴 해안에는.
나지를 잡는 아낙의 손끝에 만월의 태양도 어절 줄을 물라 합니다.

눈앞에서
금방이라도 살아서 달려올 것 같은 장대히 다리 보며
그림같은 사람들 끝을 끝리며.
그 긴 해학을 깎내 맛으며 자리 지킨.
소나무들이 멋 기억은 까워줍니다.

우상과 무지코 내일의 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ত래사 서나처럼 사람의 몸짓으로 다가간.
순교자의 손으로 전도사님의 순교의 피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몸의 하나가 되어.
설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고.
순교자의 기념비들은 갈까도 미소 지으며.
전도사님의 그 따스한 미소로 사람들 맞이합니다.

중도의 팔월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